정보

개요
곡명: Fidelio, Op. 72
작곡가: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장르: German opera / Singspiel
대본: Joseph Sonnleithner, Stephan von Breuning, Georg Friedrich Treitschke가 단계적으로 개정
작곡 및 개정: 1803–1805년 초판, 1806년 개정판, 1814년 최종판
초연: 1805년 11월 20일, Theater an der Wien; 최종 2막판은 1814년 5월 23일 빈 Kärntnertortheater 에서 초연
성격: Beethoven이 완성한 유일한 오페라로, 남장한 Leonore가 정치범으로 투옥된 남편 Florestan을 구하는 이야기를 가정 희극에서 공적 해방의 장면으로 확장한다.

Fidelio 는 한 번에 완성된 오페라가 아니다. Beethoven은 프랑스의 구출극 대본에서 출발해 세 차례의
공연판을 만들었고, 1814년에는 대본과 음악을 함께 다시 손질했다. 최종판은 독일어 대사와 노래 번호가 교차하는 Singspiel 형식을 유지하지만 , 1막의 집과 감옥 마당에서 시작한 일상적 오해가 2막의 지하 감옥과 공개적인 석방으로 확대된다. Leonore의 변장은 희극적 장치인 동시에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분이며, 마지막 합창은 부부의 재회를 자유와 정의의 공적 장면으로 넓힌다.

대본과 판본의 여정

이야기의 출발점은 Jean-Nicolas Bouilly의 프랑스어 대본 Léonore, ou l’amour conjugal 이다. 이 텍스트는 혁명기의 구출극과 부당한 투옥을 다루었고, Pierre Gaveaux의 음악으로 1798–1799년 파리에서
공연되었다 . Theater an der Wien의 Joseph Sonnleithner는 독일어판을 마련하면서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장소와 시대를 스페인과 과거로 옮겼다. 프랑스 원전의 번호극과 대화 구조는 남았지만, 독일어 징슈필의
말하기와 노래하기가 새로운 무대 문법을 만들었다.

1805년 초판의 대본은 Sonnleithner가 담당했다. Beethoven은 첫 공연 뒤 친구 Stephan von Breuning과 함께 세 막을 두 막으로 줄였고, 1814년에는 극장 실무자 Georg Friedrich Treitschke가 기존 대사를 사실상 다시 썼다. 후대 연구에서는 세 판본을 구별하기 위해 1805년과 1806년 공연판을 Leonore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당시 포스터와 인쇄물에는 Fidelio 라는 제목이 계속 사용되었다 .

1805년 11월 20일 Theater an der Wien에서 초판이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 작품은 짧은 기간만 상연되었다
. 초판이 세 막으로 길었고, 빈이 프랑스군 점령 아래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이 초기 수용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지만 , 공연 철회의 원인을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다. 1805년 12월 개정 결심 뒤 1806년 3월 29일과 4월 10일에 두 막 개정판이 공연되었으나 , Beethoven은 극장과의 분쟁 뒤 악보를 회수했다.

1814년 최종판은 1806년 필사본을 주된 작업 원천으로 삼으면서도 일부 번호에서는 1805년 자료를 다시 참조했다. Treitschke는 대사를 줄이고 장면을 재배치했으며 , Beethoven은 Leonore와 Florestan의 장면, 두 막의 피날레를 크게 다시 썼다. 최종판은 1814년 5월 23일 초연되었고 , 새 Fidelio Overture는 5월 26일 두 번째 공연에서 처음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Leonore의 새 아리아 Abscheulicher! Wo eilst du hin? / Komm, Hoffnung 은 6월 18일 자선 음악회에서 별도로 처음 제시되었다 . 이 날짜들은 모두 ‘1814년 최종판 ’ 이라는 한 사건으로 합치지 않고, 공연과 새 음악의 도입 시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1814년 최종판의 무대

최종판은 독일어 2막 Singspiel이다. 1막은 감옥 관리 Rocco의 집과 감옥 마당에서 진행되고, 2막은 지하 감옥에서 시작해 마지막에 성의 뜰로 이동한다. 관현악 번호와 레치타티보 , 아리아, 앙상블 사이에는 독일어 대사가 놓인다. 2막의 도입부에는 Hier wird aufgezogen 라는 무대 지시가 전해지는데 , 이는 막이 내려간 상태에서 지하 감옥의 장면을 준비하는 음악이라는 뜻이다. 오래된 인쇄판에서 이 지시가 빠진 사례가 있어, 역사적 비평판은 원자료의 무대 정보를 다시 살린다.

주요 배역은 Leonore/Fidelio(소프라노), Florestan(테너), Rocco(베이스), Marzelline(소프라노), Jaquino(테너), Don Pizarro(바리톤), Don Fernando(바리톤)이며, 죄수와 경비병, 사람들로 이루어진 혼성 합창이 더해진다. Bärenreiter의 최종판 서문은 Don Fernando를 바리톤으로 제시하지만 , 다른 공연 자료에서
성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역표의 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막: 일상의 오해에서 감옥의 현실로

첫 장면의 중심은 Marzelline의 결혼 희망이다. 그녀는 ‘Fidelio’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젊은 하인을 사랑하지만
, 관객은 그 하인이 남편을 찾으러 감옥에 들어온 Leonore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Jaquino의 구애와 Marzelline의 오해는 가정 희극의 표면을 만들고, Rocco의 아리아 Hat man nicht auch Gold beineben 은 사랑과 결혼을 돈과 생활의 문제로 바라보는 현실 감각을 드러낸다. 네 인물의 4중창 Mir ist so wunderbar 에서는 같은 순간에 서로 다른 감정이 겹치며,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분의 긴장이 음악으로 들린다.

Pizarro의 도착을 알리는 행진곡과 그의 아리아 Ha! welch ein Augenblick 은 집 안의 사소한 오해를 권력의 음모로 바꾼다. Don Fernando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Pizarro는 그 전에 Florestan을 죽이려 하고, Rocco에게 지하 감옥을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Leonore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Abscheulicher! 는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결심을 한 장면 안에 놓는다.

1막 피날레 O welche Lust 에서 죄수들은 잠시 감옥 밖으로 나와 햇빛과 공기를 경험한다. 합창은 자유를 완전히 얻은 노래가 아니라, 곧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짧은 틈의 노래다. Pizarro의 명령이 그 틈을 닫고, Leonore는 Rocco와 함께 Florestan이 갇힌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한다. 이 지점에서 Singspiel의 가벼운 대화는 더 이상 감옥 바깥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2막: 구출과 공개적인 판결

2막 첫 번호인 Florestan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Gott! Welch Dunkel hier! / In des Lebens Frühlingstagen 은 지하 감옥의 어둠과 고립을 거의 오라토리오처럼 집중시킨다 . Florestan은 절망 속에서도

Leonore의 모습을 환영처럼 떠올리며, 개인적인 기억을 생의 구원에 대한 상상으로 바꾼다. 이어지는
멜로드라마와 Rocco·Leonore의 이중창에서는 말과 관현악이 묘를 파고 물과 빵을 건네는 행동을 끊임없이 밀어간다.

Pizarro가 나타나 Florestan을 죽이려는 순간, Leonore는 권총을 꺼내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4중창 Er sterbe! Doch er soll erst wissen 은 폭력의 명령, Rocco의 주저, Leonore의 결단, Florestan의 인식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어지는 O namenlose Freude! 는 부부가 서로를 확인하는 짧고 강한 재회의 장면이다.

2막 피날레에서는 무대 밖 트럼펫이 Don Fernando의 도착을 알린다. 보이지 않는 외부의 신호가 지하 감옥의 닫힌 시간을 끊고, Don Fernando가 죄수들의 석방을 명령한다. Rocco가 Florestan의 억류와 Pizarro의 범죄를 밝히면서 사건은 사적인 복수에서 공적인 판결로 이동한다. Heil sei dem Tag 와 Wer ein solches Weib errungen 으로 이어지는 합창은 Leonore의 충실함을 기념하면서 자유와 정의의 회복을 공동체의
목소리로 만든다.

네 서곡과 공연의 입구

Beethoven은 이 오페라와 관련해 네 개의 서곡을 남겼다. Leonore Overture No. 2는 1805년 초판의 공연 서곡이고, No. 3은 1806년 개정판과 연결된다. 1807년 Prague 공연 계획과 관련된 No. 1은 실제 공연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현된 판본의 초연 서곡으로 세지 않는다. 1814년 최종판의 공식 서곡은 짧은 E 장조 Fidelio Overture다.

Leonore No. 3은 Florestan의 어둠, 무대 밖 트럼펫, 구출의 상승을 큰 관현악 호로 압축한다. 이 서곡의 극적 규모가 1막의 Marzelline과 Jaquino 장면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공연에서는 Fidelio Overture로 오페라를 시작하고 No. 3을 2막 마지막 장면 앞에 넣거나 콘서트 곡으로 분리하는 선택이 있다. Vienna State Opera의 Franz Welser-Möst가 설명한 이런 배치는 특정 제작의 해석이며, 1814년 최종판의 고정된 번호 배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5월 23일 최종판 초연 당일에 어떤 대체 서곡이 연주되었는지는 새 Fidelio Overture의 첫 연주가 5월 26일이었다는 기록 때문에 확정하지 않는다.

편성과 판본이 남기는 소리

최종판의 기본 관현악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팀파니, 현악으로 구성되며, 무대 밖 트럼펫이 추가된다. 콘트라바순은 판본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다르다. Bärenreiter 서문은 Beethoven이 1806년 Leonore 의 여러 번호에 콘트라바순을 썼지만, 1814년 최종판에서는 Rocco와 Leonore의 묘지 이중창 한 번호에만 남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콘트라바순을 모든 공연에 당연히 포함되는
저음 악기로 표기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Bärenreiter의 Helga Lühning과 Robert Didion은 자필 원고, 1805년과 1806년 자료, 1814년 새 작곡 부분 , 생전 인쇄판을 대조한 역사 ·비평판을 만들었다. 이 판은 오래된 Gesamtausgabe가 반복한 음, 셈여림, 아티큘레이션 , 편성의 오독을 교정하고, 일부 장식음의 당시 성악 실행 단서를 제공한다. Fidelio 를 단일한 1814년 총보로만 보는 대신, 번호마다 서로 다른 원고와 개정 흔적을 가진 작품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연 시간과 녹음의 조건

무대 공연은 독일어 대사의 길이, 서곡의 선택, Leonore No. 3 삽입, 휴식과 장면 전환에 따라 약 2시간 30 분에서 2시간 50분까지 달라진다. Royal Ballet and Opera는 약 2시간 35분, Metropolitan Opera는 약 2 시간 40분, Maggio Musicale Fiorentino는 약 2시간 50분을 안내한다. 음반은 대사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간 단위로 보아야 한다.

Furtwängler의 1953년 Vienna Musikverein 스튜디오 녹음은 2시간 14분 8초로 표시되며, 대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Leonore No. 3이 피날레 앞에 삽입된 판으로 비교된다. Klemperer의 1962년 녹음은 전체 대사와 No. 3을 포함한 사례로 소개된다. Mackerras의 1996–1997년 Telarc 녹음은 시대적 연주 관행을 참고해
현악 규모를 줄이고 fortepiano continuo를 더했으며, 1805–1806년판에 있던 Don Fernando의
레치타티보를 1814년 피날레 앞에 복원했다. 이 선택은 최종판의 공식 번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판본의 관계를 한 녹음 안에서 들려주는 편집이다.

1950년 Salzburg 실황, Bernstein의 1978년 Vienna 녹음, Harnoncourt의 1994년 Chamber Orchestra of Europe 녹음도 서로 다른 대사와 음향 조건을 보여 준다. 음반의 평가는 비평가와 레이블의 발화로
구분해야 하며, 어느 한 녹음의 속도나 성악진을 작품의 유일한 기준으로 만들 수는 없다. 연주 자료가 알려 주는 것은 Fidelio 가 고정된 단일 공연물이라기보다 , 판본 ·대사 ·서곡 ·악기 규모를 둘러싼 선택을 계속 포함해 온 레퍼토리라는 사실이다.

사랑과 자유가 만나는 결말

Fidelio 의 극적 방향은 Leonore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에서 시작한다. 남장과
오해는 1막에서 Singspiel의 희극적 장치를 제공하지만 , 2막에서는 권력의 폭력 앞에 몸을 세우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바뀐다. Florestan의 어둠, 죄수들의 짧은 햇빛, 무대 밖 트럼펫, 마지막 합창은 서로 다른 공간과 집단을 연결한다.

Beethoven은 세 판본에 걸쳐 이 연결을 계속 다듬었다. 초판의 긴 3막 구조와 1806년의 압축, Treitschke의 1814년 대본 개정은 작품의 진행을 더욱 직접적인 구출 장면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최종 Fidelio 는 매끈한 희극이나 순수한 정치극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가정의 대화에서 출발한 음악이 부부의 충실함과 억압받은 사람들의 해방을 같은 피날레 안에서 노래한다는 점이, Beethoven의 유일한 오페라가 오랫동안 레퍼토리에 남은 이유다.

주요 자료

Beethoven-Haus Bonn 작품 데이터베이스

Bärenreiter Fidelio, Op. 72 보컬 스코어

Bärenreiter 편집자 서문

Beethoven Music Research Center, Opus 72

Metropolitan Opera: Fidelio 시놉시스

Royal Ballet and Opera: Fidelio Opera Essentials

- Vienna State Opera □□□
- Naxos Historical Furtwängler 1953 □□
- Concord/Telarc Mackerras `Fidelio`
- IMSLP: `Fidelio`, Op. 72
- Wikipedia: `Fidelio`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4:25 UTC by □□□
Updated 2026-10-04 10:04:25 UTC by □□□